

7-12-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창세기 2:18-24

말씀 제목: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와의 신비로운 관계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그의 모습으로 먼 훗날 세상에 나타나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고전 15:45).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 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신비로운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창 2:24)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엄청난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아내와 결합하기 위하여 지상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오실 때 자신의 아내를 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잠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아내 될 사람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신 후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 베드로 앞에서 누가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회를 반석이신 자신 위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17-23)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분과 혼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6-27)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엡 28-30)

마침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31-33)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7-19)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0-27)

아멘! 할렐루야!